

‘무심’ 하려고 하면 도리어 ‘유심’ 된다

당장 한 생각에 깨달은 것이나 10자를 거쳐 깨달은 것이나, 그 효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다시 깊고 얕음의 차이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영겁의 세월 동안 헛되이 괴로움을 받을 뿐이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올라간 것이나 한 번에 올라간 것이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오랫동안 애쓰는 사람을 보고 둔하다고 하는 것이다. 한 번에 확절대오 하면 그만인 것을, 두 번, 세 번에 걸쳐 깨달으려니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처음에 안 것은 알은 데에 머물렀는데, 다시 깨닫고 보니 깊은 데에 들어갔다.”는 말은 허망한 소리다. 이렇게 깨진 사람은 단계에 천착해서 뒷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이 공부에는 깊고 얕음이 아니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악이나 선을 짓는 것은 모두 모양(相)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모양에 집착하여 선악을 짓게 되면, 왜곡되어 윤회를 받게 된다.

너와 나의 구분이 생긴 이상, 분별심이 없을 수가 없다. 환벽스님은 차체를 빌리지 않고 조사선 도리로 배후 거사를 한방에 깨쳐주었다. 지금 한 생각 돌이켜서,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그대로 끝이다. 하지만 공부하고 난 후에도 부처가 되고 싶고 보살이 되고 싶은 생각을 자주 일으키다보니, 스스로 어지러워져서 자기 공부도 뒤집고 선 지식의 가르침도 무시하게 된다.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자각하여 진실로 정진하게 되면, 공덕이 쌓이고 원력이 불는다. 그러면 공부함이 생겨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입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그 무엇도 말끝에 이 법을 곧바로 깨닫는 것만 못하다. 이 법이 곧 마음이고, 마음 외에 따로 법이 없다. 이 마음이 곧 법이고, 법 외에 따로 마음이 없다. 마음 스스로 무심이 되면, 무심이라 할 것도 없다.

실상은 뭐라고 이름 붙이고 설명할만한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 부르고 있는데, 이미 확인한 사람은 의연하게 수용하면 그만이다.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또 때가 되면 잠을 자는 것뿐이다.

마음을 가지고 무심해지려고 하면, 도리어 마음이 있게 된다.

본래 다 드러났는데, 무엇을 또 없애려고 하는가? 공부에 집착해서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⑧



범어사 주지

종일 생각 일으켜도 일으킨 바 없는 것을 알면 꼬달리지 않는다

습기 없애려 하거나 쫓아가지 말고 흐름에 맡겨라

그러나 알고 가야지 모르고 길을 가면 깜깜할 뿐이다

정진은 어떻게 해야하나 먼저 눈 뜬 선지식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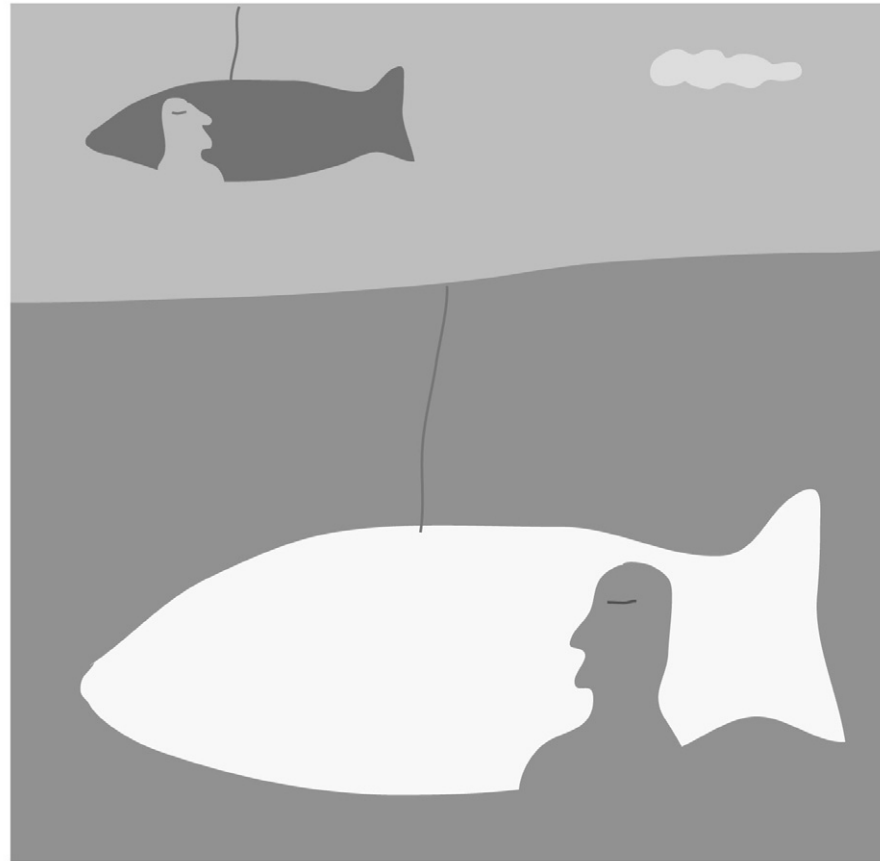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세상 돌아가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루 종일 생각을 일으켜도 일으킨 바가 없다는 것을 알면, 일어나는 생각에 꼬달리지 않으며 또 없애려 들 필요도 없다.

다만 묵묵히 계합(契合)할 따름이다. 모든 생각과 추론이 끊어졌다. 고로, ‘언어의 길이 끊기고, 마음 가는 곳이 멀했다.’고 한 것이다.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한 부처인데, 사람마다 모두 그것을 지녔다.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볼 보살과 한 몸으로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망상 분별 때문에 갖가지 업과를 지을 뿐이다.

확절대오 해서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무엇이 부처님과 다를 게 없는지, 또 무엇이 차별된 모습을 쓰게 했는지를 자연히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길을 열어 보이셨고, 조사들께서 이어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다.

본원청정심

본래 부처에는 실로 일물(一物)도 없다. 득되고 적정(寂靜)하며, 밝고 오묘하여 안락할 따름이다.

밝음이 오면 밝아지고, 어둠이 오면 어두워진다. 밝고 어두운 모습은 아니지만, 밝다고 하면 가장 밝고 어둠이라고 하면 가장 어두운 자리다.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고를 떠난, 편안한 자리다. 열반의 진락(眞樂)이다. 참다운 열반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바

로 마음자리라고 했다.

스스로 깊이 깨달아 들어가면, 적하여 그 것이다. 원만 구축하여 다시 모자람이 없다.

깨닫고 깨닫지 않고에 상관없이 본래 성품을 가지고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깨달음을 모르고 지내다가 다행히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밝게 사문처 알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 습기로 인한 어리석음이 아직 남아, 나도 모르게 눈앞을 어지럽힌다. “공부가 되었는 데도 왜 일어나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쫓아가지 말고 흐름에 맡겨서 내버려둔 채로 세월을 지낸다면 좋은 인연은 분명히 온다. 그렇더라도 알고 시간을 보내야지, 모르고 길을 가면 장님의 세상 처럼 영원히 깜깜할 뿐이다.

설사 3아승지급을 정진 수행하여 모든 지위를 거처더라도, 한 생각 증득하는 순간에 이르러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이다.

수 없는 세월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본래부처를 깨닫는데 불과한 것이다. 정진도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서 정진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진은, 과거의 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다. 그러나 어떻게 든 해보려고 마음을 일으켜서 하는 정진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공부해서 깨달음의 눈을 뜬 선지식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㉞



이 진리는 평등하니 높고 낮음이 없다

〈금강반야바라밀경〉

토론이 가능한 교육

인도 동부의 도시 콜카타로부터 약 서너 시간 북상하면 ‘산티니케탄’이라는 한 시골마을이 나온다. 그곳에 ‘비슈바 바라티 대학’이 있다. 현재는 국립대학이지만,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상(문학상)을 수상한 라비드라나드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861~1941)가 사재를 털어서 세운 대학이다.

이 비슈바 바라티 대학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함께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교육이다. 이 과정을 파타 바반(Patha Bhavana)이라 부르는데, 야외의 나무 밑에서 수업을 한다. 초등 1년부터 고등 1년까지 10년 동안을 이렇게 한다. 여기저기 땅고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 밑에 거대한 흑판을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빨간 벽돌을 땅에 박아서 교실 경계를 표시해 둔다. 아이들은 집에서 학교로 올 때 저마다 포대 같은 것을 하나씩 들고온다. 그리고 그것을 깔고 앉는다.

이러한 파타 바반의 교육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교육방송(EBS)을 통해서 소개된 일이 있다. 타고르는 그 스스로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경험을 반성하면서,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걸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자유, 자유롭게... 무엇을 위한 자유일까? 물론, 진리를 향한 자유이다.

이 파타 바반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1933-)이다. 그는 이 파타 바반의 교육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자유로운 토론식 수업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고 회고한다. 그의 책 〈토론하기 좋아하는 인도인〉(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인도〉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다.)은 논쟁과 토론의 문화가 민주주의를 지탱한다고 말하는 책이다.

토론이 가능하려면

민주주의 진정한 꽃인 토론문화를 우리 사회에 꽃피우려면, 무엇보다도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길러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성찰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교육이다. 우리 교실은 어떤가?

우리의 교실에서 주입식 교육은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다. 여전히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대학은 어떤가? 대학원 수업은 어떤가? 다른 학문은 놓아두고, 철학 관련 학과의 대학원 수업은 어떤 것일까? “철학을 배우지 말고 철학하기를 배워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철학 관련 학과의 대학원 수업은 충분히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럼 왜 토론식 수업은 안 되는 것일까? 토론을 하려면, 교사·교수가 스스로의 권좌(權座)에서 내려와야 한다. 권력을 내려 놓아야 한다. 수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교사·교수로서 기획하고 진행하지만, 그 수업에서 행해지는 지식의 산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월권이나 진리성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주입식 교



그림 · 박구원

육이 되고 만다. 물론, 그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하다. 그렇지만 그것만이라 생각한다면, 법고(法古)는 되어도 창신(創新)은 불가능하다.

“이 진리는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할 때, 이 진리(法)는 ‘진리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번역해도 좋을 듯하다. 거기에 무슨 높고 낮음이 있다는 말인가. ‘누가’가 정말 중요한가?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의 내용이 옳으나 아니냐가 중요한 뿐, 말하는 자가 박사인지 아닌지, 교수인지, 아닌지, 제도권인지 아닌지 등 이런 세속적 구분은 전혀 의미가 없다. 적어도 이 진리를 말하는 자리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순간 그는 권력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무엇이든, 그 권력을 방패로 삼게 된다. 무서운 일이 아닌가. 참으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라면, 거듭 거듭 경계하고, 또 성찰할 일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마음의 손으로 쓰는 Diary

마음 다이어리는 하루하루 내 마음의 흐름을 지켜보고 기록하며 가꾸어 가기 위한 빈 그릇입니다. 하루 중에 만난 사람들,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들고 나는 마음들을 살펴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비워낸 그 자리에 마음의 꽃을 피우면서 변화해 가는 ‘나’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 가격 : 1권 13,000원 (택배비 별도)
- 문의 : 02)2004-8215

2013년 ‘마음다이어리’는 대행선사를 추모하며 스님의 유품과 말씀을 엮은 특별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일 생활의 지침이 될 법어와 ‘임효화백’의 그림이 어우러져 다이어리의 가치와 품격을 더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일정과 방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을 상·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마음 그릇을 비우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마음 꽃을 피워봅시다. 한 주의 시작을 월요일부터! 자신을 완성시켜가는 여섯 가지 가치인 육바라밀과 자비를 실천하며 마음의 향기를 더해주세요-

